

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방설영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Sul-Yeong Bang
College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원시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K도 C시 소재, 3학년 간호대학생 총 57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였다.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이론교육 3주와 CEDA 토론학습 6주로 총 9주 동안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t=13.816, p<.001$)과 윤리적 딜레마($t=6.205, p<.001$)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t=11.950, p<.001$)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있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ethical education using CEDA discussion learn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57 third year nursing students from a nursing college in C cit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4 to May 13, 2019. Ethics education using CEDA discussion learning was conducted for 9 weeks, including 3 weeks of theoretical education and 6 weeks of CEDA discuss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WIN / 21.0. The results indicate that ethical education using CEDA discussion learning positively affec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t=13.816, p<.001$), ethical dilemma ($t=6.205, p<.001$)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t=11.950, p<.001$). In addition, the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al,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self-confidence are correlated,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differ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Our results indicate a necessity to strengthen the ethics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help develop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onfident ethical decision-making in an ethical dilemma.

Keywords : Ethics, Nursing, Self Concept, Dilemma, Decision Making

본 연구는 창신대학교의 교내 연구 지원비로 진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Sul Yeong Bang(Changshin University)

email: cui_bono@naver.com

Received September 6,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Revised October 18, 2019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간호대학교의 신입생은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 정책에 따라 매년 증원되어 왔으나 신규간호사는 임상적응력이 부진하고 이직률은 전체간호사의 60%를 넘고 있다[1]. 이에 대해 대부분 간호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고[1, 2], 전문직관이 낮은 데서 원인이 있다[2, 3]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에게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되며[2, 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함양시킬 수 있는 윤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 5].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6]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5].

또한 최근의 간호 현장은 다양한 이유로 윤리적 딜레마 사례가 증가하며[7, 8]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들의 좌절, 분노, 업무 효율성 감소 및 직무 만족도 저하로 연결되어 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9] 결국 이직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10]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4, 9]. 이런 상황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과학적인 지식체로서의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틀로 작용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의 행동 기준을 제시하므로 윤리적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9, 11].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12]. 이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호사는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고 자신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윤리교육은 주입식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3]. 특히 CEDA 토론은 찬반논쟁 형식의 토론학습법에 팀별대항방식(Team-Game-Tournament)의 협동학습법이 결합된 형태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적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15].

그러나 국내에서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자존감,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윤리교육의 효과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확립 및 이를 통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하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윤리 수업에서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4)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원시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 .05(중간), 유

의수준(α) .05[13], 통계적 검정력($1-\beta$) .95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45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K도 C시 C대학의 IRB승인(CSIRB-R2018002)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K도 C시 소재, 1개 4년제 간호학과 학생 중 간호윤리 교과목을 신청한 3학년 학생들로 총 58명이었고,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연구 참여설명문을 이용하여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자가 연구목적, 절차, 참여에 따른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없고 연구진행 도중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연구를 거부하고 중단할 수 있음과, 수집된 설문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및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율적인 의사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반대표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밀봉 가능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수거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Paired t-test를 위하여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의 숫자를 적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1회 이상의 결석으로 응답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5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여 표본수는 충족이 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4, 15, 16]에서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 주로 알려진 성별, 연령, 입원경험, 헌혈경험, 전공만족도, 학과 선택동기 등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6]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17]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1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형 문항(9. 12. 13. 18. 21. 23. 25)은 역채점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 최고 10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oh[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이었고, Seo[18]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3.3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Han[19]이 개발한 윤리적 딜레마 도구를 기초로 최근 의료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딜레마 문항들로 Yang[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인간생명 영역 7문항(생명존중 및 인간의 권리), 대상자 영역 6문항(간호사와 대상자), 전문직 업무 영역 14문항(간호사와 전문직 업무), 협동자 영역 7문항(간호사와 협동자)의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34점에서 최고 1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딜레마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 Yang[20]의 도구는 .92,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4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Sulmasy, Geller, Levine과 Faden[21]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PECS)을 Laabs[22]가 수정, 보완하고 Kim[2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aabs[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이었고, Kim[23]의 연구에서는 .86,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사전윤리교육 3주와 CEDA 토론학습 6주로 구성된 총 9주의 기간[15, 24]을 전·후로 효과를 측정하였다. 간호윤리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9주차 수업 종료 후 사후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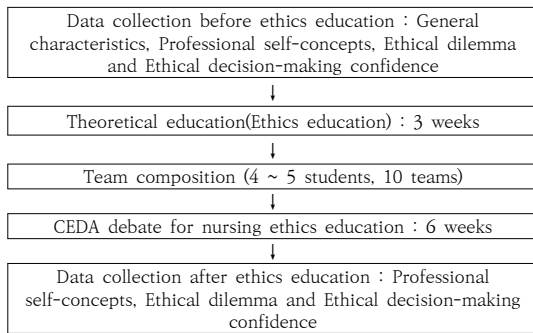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ss

1) 연구자 준비

CEDA 토론학습은 본 연구자 1인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토론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연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개 학기의 문제중심학습(PBL)과 4개 학기의 팀학습, 3개 학기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하여 소그룹 토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2) CEDA 토론학습 운영 -이론적 단계

CEDA 토론학습 운영은 선행연구[15, 24]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론적 단계인 강의식 교육을 3시간 제공한 후 딜레마 사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윤리원칙과 같은 윤리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상황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론단계에서는 강의식 교육을 선택하였다.

이론 단계에서는 윤리적 개념과 윤리이론, 생명윤리와 간호윤리, 간호실무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동영상과 PPT를 이용한 강의식 학습을 진행하였다. 각 내용은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하루 주제는 윤리와 윤리이론에 대한 개념, 생명윤리의 시작과 윤리원칙, 윤리규칙, 간호윤리, 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부분과 간호실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1주 단위로 3주간 진행하였다.

3) 딜레마 주제 선정

선행연구[9, 14, 25-26]를 바탕으로 생명복제 찬성, 무위미한 심폐소생술 중단, 안락사 찬성, 무균술을 어긴 선배 간호사의 행위 묵인, 생명복제 찬성, 임신중절 수술, 안락사, 심폐소생술 중단에 관한 문제의 6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4) 팀구성

CEDA 토론학습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4명 혹은 5명으로 구성된 팀이 6개가 되도록 편성하여 찬성 5팀과 반대 5팀으로 정하였다.

5) CEDA 토론학습 운영 -CEDA 토론단계

윤리교육에서 실제적 딜레마 사례를 통해 윤리문제를 파악하고 윤리적 가치와 규칙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윤리적 쟁점에 대한 도덕 판단력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27]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토론학습을 선정하였다. CEDA 토론방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찬성의 긍정 측과 반대의 부정측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하는 구조[15, 24, 28]로 진행하여 CEDA 토론방식의 복잡한 절차에서 오는 토론 분위기의 혼란을 보완하고 딜레마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을 경청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① 1단계

팀별 토의를 하는 과정으로 윤리이론, 윤리원칙, 윤리규칙 등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팀의 입장을 정리하고 숙지하도록 하였다.

② 2단계

각 팀의 2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팀을 향해 입론을 펼치고 상대방의 확인 질문인 교차조사(cross examination)에 답을 하고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교차조사와 반박한 후 그에 따른 점수를 받아온다. 경쟁적 논쟁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1회 토론이 종료된 후 본 연구자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③ 3단계

마지막 반박의 과정으로 다른 팀과의 토론을 통해 확인된 상대측의 논점과 본인 측의 오류를 보완하여 입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팀 내 토의시간을 제공한 후 가장 점수를 낮게 준 2개의 팀을 선택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마지막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평가

일반적인 CEDA 토론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배심원 역할 학생이 승패를 결정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가 평가하였다.

Step		Learning activities	Time (min)
Step 1	Topic	Topic selection Positive / Negative	2
	Distributing roles	Positive team Negative team	1
Step 2	Debate (3Teams)	Argumentation	2
		Cross examination	2
		Rebuttal	2
		1 Team	6

Step 3	Team rebuttal	Team finish	3
Step 4	Wrap-up	Instructor finishing	5
Total time			50

Fig. 2. CEDA debate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 전·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3)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 전·후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CEDA 토론학습 적용 기간이 6주로 비교적 짧았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1명(89.5%), 남성이 6명(10.5%)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20.93±1.68세였고, 입원경험은 53명(93.0%), 현혈경험도 47명(82.5%)으로 대부분 입원경험과 현혈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3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학과선택 동기는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24명(42.1%), 취업 18명(31.6%)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7)

Variables	Categories	n (%)	M±SD
Age (year)			20.93 ±1.68

Gender	Male	6(10.5%)
	Female	51(89.5%)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4(7.0%)
	No	53(93.0%)
Blood donation experience	Yes	10(17.5%)
	No	47(82.5%)
Major satisfaction level	Unsatisfactory	2(3.5%)
	Usually	22(38.6%)
	Satisfaction	33(57.9%)
Motivation to choose a department	a third-party recommendation	12(21.1%)
	Volunteer spirit	3(5.3%)
	Job favorability	24(42.1%)
	Employment	18(31.6%)

3.2 윤리교육 전·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비교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 전·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Table 2와 같다.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 전·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t=13.816, p<.001), 윤리적 딜레마(t=6.205, p<.001),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t=11.95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in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fter ethics education (N=57)

Variables	Post test - Pre test	t (p)
	M±SD	
PSCNI	5.12±2.82	13.816(<.001)
Ethical Dilemma	-9.88±12.13	6.205(<.001)
PECS	6.67±2.82	11.950(<.001)

PSCNI :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ECS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3.3 윤리교육 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의 상관관계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 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순상관관계가 있으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fter ethics education (N=57)

	PSCNI	Ethical Dilemma	PECS
	r(p)		
PSCNI	1		
Ethical Dilemma	.699(<.001)	1	
PECS	.309(.031)	.067(.648)	1

PSCNI :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ECS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교육 후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교육 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F=15.67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가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해 사후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전공에 불만족한 집단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집단과 전공에 불만족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6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 있는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과정으로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윤리교육을 통해 전문직 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16, 29]와 유사한 결과이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간호전문직관도 함께 발달하고 성숙하므로[2, 30] 윤리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임상현장의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간호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10],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Table 4. Differ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7)

Variables	Categories	PSCNI		Ethical Dilemma		PECS	
		M±SD	t/F/r	M±SD	t/F/r	M±SD	t/F/r
Age (year)		20.93±1.68	.135	20.93±1.68	-.151	20.93±1.68	-.022
Gender	Male	78.17±13.24	-.723	97.33±16.77	.978	33.94±3.86	-1.986
	Female	75.57±7.67		102.55±11.83		37.50±6.38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70.25±9.46	-1.411	107.75±9.32	.965	36.75±5.91	1.190
	No	76.26±8.14		101.57±12.52		34.13±4.13	
Blood donation experience	Yes	80.70±7.27	2.101	98.10±13.84	-1.101	36.90±5.00	2.182
	No	74.81±8.20		102.83±12.01		33.77±3.93	
Major satisfaction level	Unsatisfactory ^a	59.50±5.78	15.670 [*]	116.50±4.95	1.715	38.50±9.19	1.125
	Usually ^b	71.59±9.40		100.05±9.40		33.82±3.66	
	Satisfaction ^b	79.67±7.34		102.42±13.87		34.39±4.37	
Motivation to choose a department	a third-party recommendation	74.42±7.94	2.300	94.33±12.94	2.110	34.33±5.90	.778
	Volunteer spirit	67.00±4.58		101.67±11.50		30.67±1.53	
	Job favorability	78.46±7.67		104.29±10.84		34.63±2.84	
	Employment	74.78±8.81		104.11±12.90		34.50±4.85	

$p<.001$

PSCNI :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ECS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딜레마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15]에서 CEDA 아카데미 토론학습을 적용한 간호윤리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Weis와 Schank[31]는 윤리적 딜레마가 계속 늘어가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아카데미 토론학습기반 간호윤리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 연구[24]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윤리교육 경험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4]와 윤리교육이 간호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16]를 통해서도 윤리교육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순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28], 전문직관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순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30]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32]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절대적인 답은 없으며 개인의 가치관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10, 33]에서도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과에 대한 적응과 만족감을 향상시켜줄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낮추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켜 옹호자의 역할 및 안전한 간호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윤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와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있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관련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다양한 형태의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I.Jung, K.S.Lee, H.Y.Jung, "Effects of a introduction of nursing and bioethics subject on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4, No.4, pp.689-698, Dec. 2016. DOI:<http://doi.org/10.15205/kschs.2016.12.31.689>
- [2] E.S.Lee, M.S.Park,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 pp.311-320, Jan. 2017.
DOI:<https://doi.org/10.14400/JDC.2017.15.1.311>
- [3] E.J. Seo, N.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5, pp.349-358, May.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5.34>
- [4] J.H.Bae,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its related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2, No.1, pp.271-278, 2018.
DOI:<https://doi.org/10.21184/ikeia.2018.1.12.1.271>
- [5] M.Y.Moon, “Effects of ethical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efore applying nursing ethics educ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9, pp. 305-314, September, 2018.
DOI:<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9.07>
- [6] D.Arthur, “The develop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1990.
- [7] M.O.Park, H.J.Yun, “Nurse’s Experience dealing with ethical dilemma in intensive care uni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8, pp.81-93, August, 2016.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8.36>
- [8] J.H.Shin, S.H.Jeong, M.H.Lee, Y.R.Yang, “Experiences of ethical issues and needs for ethics education in clinical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3, pp.327-339, July, 2015.
DOI:<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41820>
- [9] K.J.Lee, S.Y.Yoo,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7, No.1, pp.1-15, April, 2011.
- [10] T.K.Kim, Y.G.Bak,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3, pp.1-13, March, 2018.
DOI:<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3.15>
- [11] K.J.Lee, E.Lee, Y.S.Park, “Comparison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2, pp.377-388, 2016.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377>
- [12] T.A.Iacobucci, B.J.Daly, D.Lindell, M.Q.Griffin,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ethical confid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20, No.4, pp. 479-490, 2013.
- [13] W.J.Kim, J.H.Park,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n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4, No.3, pp.179-186, December, 2017.
DOI:<http://dx.doi.org/10.5953/JMJH.2017.24.3.179>
- [14] J.H.Jung, H.J.Park, I.S.Jang,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upon CEDA Debates on Moral Judgment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248-258, August, 2012.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48>
- [15] S.H.Lee, S.H.Kim, “Effects of a Debate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thical Value and Moral Judgment in Nursing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4(B), pp.2263-2276, August, 2017.
- [16] N.H.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Ethic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4, No.2, pp.154-162, 2018.
DOI:<https://doi.org/10.14370/jewnr.2018.24.2.15417>
- [17] K.Y.Sohng, C.H.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6, No.1, pp.94 -106, 1996.
- [18] W.H.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34-35, 2007.
- [19] S.S.Ha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oral Reasoning and Ethical Decision Making for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 No.1, pp.268-284, 1992.
- [20] Y.K.Yang, *Relationships between Ethical Dilemma and Job Satisfaction of one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Chunnam National University, pp.40, 2003.
- [21] D.P.Sulmasy, G.Geller, D.M.Levine, R.Faden,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Archieve of Internal Medicine*, Vol.150, No.12, pp. 2509-2513, 1990.
- [22] C.A.Laabs,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33, No.1, pp.10-14, 2012.
- [23] C.H.Kim, *The Relationships among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Values,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M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pp.53, 2014.
- [24] W.J.Kim, *Development and Effect of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 Based on Academic Debates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pp.26-27, 2018.
- [25] G.S.Jeong, “The Effect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Freshma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376-386, August,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376>

- [26] J.M.Jeong, J.H.Park, S.H.Jeong, "Case Development on Nurses' Ethical Dilemmas with Physicians' and Nurses' Decision Ma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9, No.5, pp.668-678, December, 2013.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5.668>
- [27] M.A.Kim, "Two Teaching Method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Moral Intelligence,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Theatre of Situations and Pro-Con Debate", *Journal of Korean Medical Ethics*, Vol.16, No.3, pp.376-390, 2013.
- [28] M.H.Lim,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6, pp. 75-84,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6.075>
- [29] M.S.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3, pp.382-392,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30] M.J.Oh, J.M.Lee, "The Effect of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and Ethical Decision Making on the Nursing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1 pp.181-195, November,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imahs.2017.11.14>
- [31] D.Weise, M.J.Schank, "Development and phycometric evaluation of the nurse professional value scale-revise", *Journal of Nursing Measurment*, Vol.17, No.3, pp.221-231, 2007.
- [32] Y.H.Jeon, K.I.Jung, H.S.Song, E.S.Na, "Factors Influencing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501-512,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501>
- [33] H.M.Hwang, "The effect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fte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476-483, 2018.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6.476>

방 설 영(Bang Sul Young)

[정회원]



- 2000년 7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전문직, 간호윤리, 간호관리